

폭염·가뭄 대응 강화... 농축산 피해 최소화 총력

도, 여름 재난 대비 시군 대응상황 긴급 점검... 시군별 협력체계 강화·농작물과 가축 피해 예방 지원 등

전북자치도가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과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재해 대응체계 마련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오전 도청 7층 재난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응 추진상황 시군 점검회의'를 열고, 도내 14개 시군 농정 및 축산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폭염·가뭄 피해현황, 대응계획, 예방사업 추진상황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오전 도청 7층 재난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응 추진상황 시군 점검회의'를 열고, 도내 14개 시군 농정 및 축산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전북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고온 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체감온도 33°C 이상의 폭염특보가 지난 6월 27일 고창·익산 주외를 시작으로 현재 도내 전 시군에 발효 중이다.

특히 도내 여름철(6~8월) 폭염일수가 평년(1991년~2020년) 11.6일에서 최근 10년(2020년~2022년) 13.8일로 평년보다 2.2일 많게 나타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농작물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해 차광망, 미세살수장치 등 폭염 대응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고추, 인삼, 과수 등 고온에 취약

한 작물을 중심으로 생육단계별 관리 기술과 병해충 방제기법을 현장에 전달하고 있으며,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자연재해 대비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8만1천ha, 농업인안전보험 8만5천 명 가입을 완료했다.

축산 분야는 냉방장치 설치, 사료 첨

가제 지원 등을 통해 가축의 열 스트레스를 줄이고, 폐사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에는 폭염 특보 발효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조정, 폭염특보 발효 시 작업 중지 권고, 다국어 안전 가이드 배포 등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7,400여 명이 도입됐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정재관 스마트농산과장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업·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철저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군과 함께 농업·축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즉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국가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우수기관 선정

계획수립·이행실적 등 평가항목 전 분야에서 고른 실적 국가재난관리 대통령 표창, 재난관리평가에 연이은 쾌거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5년 국가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분석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안전관리계획 평가는 행안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 459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내용과 이행 관리 실적 등을 종합 분석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이번 평가는 여건분석, 의견수렴, 기

관 관심도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대책 집행 및 이행관리 △환류 및 제도개선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과 협업부서 검토회의 등 계획수립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관리계획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체계와 유형별 관리 대책 등이 담겨있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종합 기본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번 평가 결과가 더욱 의미가 크다.

도는 그동안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으로 선제적 재난대비체계 강화,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확대,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

며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

오택립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국가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분석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차지한 것은 안전부서와 여러 협업부서, 유관기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평가를 통해 분석된 우수사례는 도내 시군과 공유하고 보완사항은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사료값 부담 덜어드려요"... 도, 사료구매자금 596억 추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사료비 상승과 한우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사료구매자금' 59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지원금 1,482억원에 이은 조치로, 전년 대비 74억원이 증가한 총 2,078억원 규모의 용자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과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도 활용 가능해 실질적인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급과잉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는 전체의 49%에 해당하는 294억원이 배정돼 한우산업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료구매자금은 용자 100%, 고정금리 연 1.8% 조건이며, 2년 거치 후 일

상반기 이어 총 2078억 용자 한우농가 294억원 집중 지원

시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 기준에 따라 한우, 젓소, 양돈, 가금 농가는 최대 6억 원까지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암소비육지원사업, 모돈이력제 참여, 구제역·AI 예방적 살처분 피해 농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9억원까지 한도 확대가 적용된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가축 사육지 관할 시군(읍면동) 축산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군의 심사를 통해 기존 대출 잔액과 지원 가능 한도를 고려해 최종 선정된

다. 선정된 농가는 오는 9월 18일까지 지역 농협 또는 축협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더불어 전북자치도는 2024년도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과 사육 규모에 따라 용자 실행액의 0.4~1.8% 수준의 이자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병행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사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실질적 경영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세계 인구의 날 맞아,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 마련

11일 도청서, 마술·버블쇼·가족 체험부스 등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을 기념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인구의 날 문화주간'을 운영하고, 도민들이 인구문제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 공연, 체험, 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의 정책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문화주간 기간 동안 도청 1층 로비(8~11일) 및 전주 어린이창의체험관 로비(12일)에서 '전북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운영해, 전북형 인구정책의 비전과 핵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 예정이다.

또한 방송 콘텐츠와의 연계성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11일 오전 8시 25분 KBS1TV '아침마당 전북'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관계자와 '100인의 아빠' 소속 다둥이 가족이 출연해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나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TBN 전북교통방송 '전북매거진'을 통해 인구정책 좌담회가 열려, 전북의 인구현황과 과제, 정책 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문화주간 하이라이트는 12일 전주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열리는 본 행사다.

공연장 앞 로비에서 △가족사진 인쇄 △임신부 체험 △신생아 속삭이 체험 △가족 액자 만들기 △롤렛 돌리기 등 체험 부스를 운영, 도민들이 직접 인구정책 관련 메시지를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마술쇼 △버블쇼 △습사탕 공연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초청 공연이 진행되며, MBC프로덕션이 함께 참여해 콘텐츠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 컬링팀, 자발적 나눔으로 사회 귀감

선수 모교·유망주 재학학교에 발전기금 기부

세계 무대를 제패한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이 이번엔 따뜻한 나눔으로 감동을 이어간다. 선수들의 모교와 전북 지역 컬링 유망주 재학학교에 컬링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자발적 참여로 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직접 실천하기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감독 권영일)이 세계무대에서 활동의 일환으로 선수들의 모교 및 지역 유망주 재학학교에 컬링 발전기금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컬링팀 소속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추진한

것으로, 각자의 모교와 지역 후배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 대상은 선수들의 모교인 △민락중학교(경기) △희봉중학교(경기) △남춘천여자중학교(강원) △의성중학교(경북) △봉명고등학교(충북) 등 5개 학교와, 전북 지역 컬링 유망주들이 재학 중인 △전주여자고등학교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등 총 7개 학교다.

컬링팀은 각 학교에 발전기금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기부는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7일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을 방문해 개원 준비 상황을 둘러보고,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연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개원 준비 만전

전북자치도, 산림치유원 방문... 상생방안 모색 간담회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을 방문해 개원 준비 상황을 둘러보고,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연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0월 조성을 마치고, 오는 10월 공식 개원을 앞두고 있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프로그램 개발 현황, 지역 연계 전략 등을 사전에 공유하고 초기 운영상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진안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산림치유센터, 숙박, 치유숲길, 고원치유정원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전반적인 개원 준비 상태를 면밀히 살펴봤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계획, 지역 농·임산물 활용, 인재 채용 방안 등 실질적 연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 단순한 치유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임산물 우선 구매, 지역 인재 채용, 소상공인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은 해발 600~800m의 고원지대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해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증진 등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 산림복지시설로, 연간 약 2만 명 이상의 체험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신규 선정

도내 8개 마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145억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도내 7개 시군, 8개 마을이 신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북도는 국비 103억원을 포함한 총 14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의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이번엔 선정된 8개 마을을 대상

으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규 선정된 마을은 △정읍 칠보면 석탄마을 △남원 대강면 옥전마을 △김제 축산면 송남마을과 청하면 월현마을 △완주 고산면 송남마을 △진안 정천면 원월평마을 △고창 무장면 시거마을 △부안 부안읍 모산마을 등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노후주택 개보수,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및 소방도로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노인돌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도 함께 진행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지역 다가가는 소통센터' 9일 개관식

한전 중부건설본부

한전 중부건설본부(본부장 김중재)는 9일 전주시 덕진구에서 '전북지역 다가가는 소통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북지역 다가가는 소통센터는 한전이 전북지역에서 추진중인 전력망 건설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력설비 건설 필요성과 전자파 안전성,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보상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구축한다.

이 소통센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미팅룸, 북카페를 구비하여 휴식과 교류의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력망 사업 관련 한전 분사 주요인사 및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김두봉 회장 등 지역사회단체 관계자 약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